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31화 마하카사파의 귀의



이 제 비로소 교단(敎團)이 완성되었고 불교의 포교사업도 순풍에 돛을 단 듯 쾌적한 항해를 하게 되었다. 마가다 국왕 빔비사라와 그의 백성들도 거의가 우파사카(Upasaka, 在家信徒)가 되어 정성껏 공양을 바침으로써 죽림정사의 안정은 확실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붓다는 “속세(俗世)에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을 만나리라”라고 말하면서 아무도 몰래 죽림정사를 벗어나 동북쪽 오백리 길을 걸어 바이살리(Vaisali, 毘舍離)의 서북쪽에 위치한 파후푸트라카(Pahuputaka, 多子塔)의 숲으로 들어가 니그로다 나무 밑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다. 그는 장차 불교계를 이끌게 될 중요한 인물인 마하카사파(Mahakasapa)였다.

마 하카사파의 이름중 마하(Maha: ‘위대한’)는 그가 불교사에 중요한 인물에게 마하를 붙여 다른 카사파들과 구별하는 것이다. 한역으로는 대가섭(大迦葉)이라 쓴다. 마하카사파의 본 이름은 ‘핏파리’이고 카사파는 종성(種姓)의 이름이다. 그러나 본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마하카사파로 쓰기로 한다.

는데 혹시 사문께서 제 꿈에 나타나셨던 붓다가 아니시옵니까?”

“카사파여, 그대와 나는 이렇게 만날 운명이 정해져 있는 사이로다. 내가 성도(成道)를 이루던 날 너와 너의 처가 함께 출가(出家)하여 수행 길에 들어서질 않았던가?”

이윽고 니그로다 나무 옆을 통과하던 마하카사파는 그 밑에 앉아 계신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붓다의 거룩한 모습이 마치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도 같다고 생각하여 그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섰다.

이때 붓다는 마하카사파에게 귀중한 불교의 진리를 가르쳤고 이미 오랜 수행으로 마음이 열려 있던 마하카사파는 이내 진리의 깊은 뜻을 체득하면서 아라한(Arhan)의 경지에 올랐다. 이리하여 장차 불교의 교단을 이끌게 될 중요한 인물이 붓다의 새로운 제자로 영입되게 되었다.

“위대한 사문이시여, 저는 카사파라는 출가승이옵니다. 어찌하여 이런 숲 속에 홀로 앉아 계시옵니까? 제가 간밤의 꿈에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성취하신 붓다(Buddha)를 뵈었

* 우리는 이로써 붓다가 불교를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찾아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길까지 찾아다니며 능동적으로 교단의 일꾼들을 영입해 들이는 과정을 보게 된다.

이 제 붓다의 불교(佛敎)는 마가다 제일의 교단으로 그 지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일천명이 넘는 큰 교단 속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서로 섞이게 되어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교단을 통제하는 규칙을 만들게 되었으니 그러한 규칙을 ‘제(戒)’라고 한다. 그 계를 모아 놓은 것을 ‘율(律)’이라 하고 다시 이를 해설하여 교리(敎理)로 정한 것을 ‘논(論)’ 그리고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경(經)’이라 하며 경(經), 율(律), 논(論)의 세 부분을 합쳐서 ‘삼장(三藏)’이라 한다.

내부를 사제관계로 개편하여 새로 입단한 비구는 자기에게 불교의 교리 등을 지도하여 줄 화상(和尚)이 정해졌고 신입 비구는 화상의 지도를 받는 대신 화상을 섬기도록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비구가 교단(Sangha)의 한사람으로 완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계를 ‘구족계(具足戒, Upasampanna)’라고 한다. 새로운 비구(比丘)는 구족계를 받으며 교단(僧伽)의 동의를 거쳐야 했다. 이때 구족계를 받을 사람이 적어도 스무살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났다. 스무살이 못된 사람은 사미(沙彌, Samanera)자격으로 출가가 허락되었고 후일 자격이 갖추어지면 구족계를 받아 비구가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나 불심(佛心)만 있으면 비구(Bhikkhu)가 되는 것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비구로서 자질을 못 갖추고 수행자의 예절조차 가리지 못하는 자들이 속출하자 교단



아 직 붓다가 마가다의 서쪽 라즈기르의 죽림정사에서 불교의 기틀을 다 짓고 있을 무렵, 갠지스강의 상류줄기인 랍티강 유역에 자리잡은 코살라국의 수도 스라바스티(舍衛城, Sravasti)에는 수닷타(Sudatta, 須達多)라는 대부호가 살고 있었다. 코살라의 대부호 수닷타는 갠지스강을 오르내리며 무역을 하여 엄청난 재력을 이룩한 대상인이었다. 수닷타는 어느날 장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마가다의 수도 라기르에 있던 처남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참 오래간만이야 처남. 그동안 별일 없었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왜 이리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거야.”

“나는 지금 큰 공양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야. 내일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기로 했거든. 매부는 오래간만에 이곳 마가다국에 오게 되어 잘 모르겠지만 이곳 시타바나(塞林)에 부처님께서 와 계셔서 내일은 우리집으로 모시려는 것이야. 내일 아침 나와 함께 부처님을 모시러 갈까?”

처남의 이야기를 들은 수닷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말만 들던 부처님이 실제로 출현하여 계시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이때 수닷타는 부처님을 친견(親見)할 수 있다는 감격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